1.　出身地

한국에서 왔습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 이지만　지금 본가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이란 곳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대규모의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조선후기 마을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한국민속촌이 유명한 곳입니다.

2.　日本に来ようと思った理由・日本に興味を持った理由

5년전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워킹홀리데이로 도쿄에서 1년간 살아본적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살면서 일본의 47개의 도도부현의 각 지방별로 유명한 특산품과 지방의 개성, 매력, 이야기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마바리의 타올이라던지 일본은 지방별로 특징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이 아닌 지방을 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지방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관광통역안내사 가이드 자격증을 따고나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지방의 매력을 가이드로서 알리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때, 일본의 책이랑 방송을 통해서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대책으로 일본의 각 지역마다 지방이 살아가는 방법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실제로 일본에서 어떻게 대책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일본의 지방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느끼며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해 일본에 오게되었습니다.

3.　仕事について

근무처는 에히메현청과 에히메국제교류센터(EPIC), 두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히메현청에서는 통번역, 한국으로의 출장등이 있습니다. 에히메국제교류센터(EPIC) 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강좌를 열고, 방문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４．愛媛の印象

에히메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녹음이 짙고 오렌지색의 노면전차가 서로 어울러져 있는 모습이 예쁜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온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녁에 마쓰야마 시내를 산책하며 느낀점은 이 마을을 더 좋아하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５．その他なんでも

한국에는 일본이 도쿄, 오사카 이외에도 일본의 지방의 매력을 알려서 일본의 지방을 방문하도록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한국은 드라마 케이팝 뿐만 아닌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있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무언갈 만드는 것을 좋아해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매듭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언제라도 말 걸어 주세요.